

# “좋은 사람 집에서 좋은 밤 보내세요”

### 곡성군, 농어촌민박 곡성스테이 사업자 간담회 개최 운영 계획 안내·홈페이지 운영관리 등 심도있게 논의



곡성군이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곡성스테이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곡성스테이 운영 계획 안내, 곡성스테이 홈페이지(곡성스테이.kr) 운영관리 협의, 농어촌민박 현황과 애로사항,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밖에도 ‘곡성 여가’ 관광상품 이용객 숙박시설 연계, 민박시설 안전시설 보강, 민박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강화 등 민박 활성화 방안과 개선사항이 함께 제시됐다. 지난해 곡성스테이 이용 인원은 2021년 대비 60% 상승한 2,100명으로 기록됐다. 곡성스테이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감소여행 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깥 나들이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줄어들면서 오는 20일에 개최될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들로 인해 곡성의 농어촌민박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농어촌민박 곡성스테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장에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좋은 사람 집에서 더 좋은 밤이 되는 곡성스테이 민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스테이의 깨끗한 침구 관리와 친절 서비스를 통해 찾아오는 이들에게 소소한 추억과 낭만, 그리고 정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곡성스테이는 관광객들에게 농촌마을의 일상적 감성을 전하기 위해 곡성을 시내권에 조성된 민박이다. 곡성군은 농어촌민박의 선두주자로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13호점까지 문을 연 상태다. 곡성=양해영기자



## 구례군, 5일시장 내 청년점포 오픈

### 청년점포 8개소, 잔치국수·야채 초밥·샌드위치 등 다양한 먹거리

구례군은 지난 8일부터 구례5일시장 내 청년점포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청년점포 사업은 알뜰살뜰 시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상인들이 성장·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고, 5일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청년점포는 총 8개소로 잔치국수, 참쌀 파매기, 참살호떡, 해장국, 야채 초밥, 샌드위치, 산수유 음료, 닭 튀김류 등 다양한 먹거리로 상

인들과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먹거리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장소는 5일 시장 내 야외무대 주변이며, 정기장날(매월 3, 8일)에 운영한다. 일부는 주말, 휴일에도 문을 연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군 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추가 개발하고, SNS,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더욱 활기찬 5일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 화순군, 내일부터 ‘2023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화순군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 가구를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지역사회건강 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청, 화순군,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 조사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은 코로나19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일일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보건소 조사원이 조사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 조사로 진행되며,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17개 영역 145개 문항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도 제공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나주시, 올해 전체 경로당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

### 2025년까지 순차적 보급 계획 수정...올해 505곳 마을회관·경로당 보급 완료

나주시가 고령 주민의 주 생활공간인 마을회관·경로당의 입식 테이블, 의자 보급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올해 관내 마을회관·경로당 620곳에 대한 입식 테이블, 의자 보급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 주민의 관절 건강과 식사·여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발굴됐다.

윤병태 시장은 취임 초 첫 저변 시간대 ‘찾아가는 마을 좌담회’를 통해 경로당 좌식 테이블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을 마주하고 고령 주민의 관절 건강을 위한 입식 테이블, 의자 보급 사업을 약속했다.

당초 오는 2025년까지 4년 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마을 회관·경로당 115곳에 대한 입식 테이블, 의자 보급을 완료했다.

보급이 완료된 마을별 이용 만족도가 높고 호평과 극찬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고령 주민의 건강, 편의, 마을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조기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시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 4억원을 편성, 마을회관·경로당 나머지 505곳에 대한 입식 테이블, 의자를 보급할 방침이다.

마을회관·경로당에는 이용 편의와 안전성 제고,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볍고 튼튼한 ‘접이형’ 테이블을 선정 보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경로당 좌식문화로 오래 불편을 겪으셨던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과 편안한 일상, 여가를 위해 올해 안으로 조속히 마을회관, 경로당 입식테이블 보급을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세대·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양군-광주 남구 자매결연...공동 발전 위해 맞손

담양군은 12일 광주광역시 남구와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시·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자치단체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제·문화·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면서 “서로 간의 우애를 다지고 번영하는 두 도시의 앞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담양군과 자매의 인연을 맺게 돼 기쁘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두 도시의 더 빛나는 미래와 성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